

지식학습·교육시스템 미래 제시 '무크' 분석



**무크-대학의 미래를 바꿀 학습 혁명**

조너선 헤이버 지음

지난 2011년 미국 교육계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개념이 등장했다. 스탠퍼드 대학이 인기 있는 컴퓨터공학 수업들을 웹사이트에 무료 공개한 것이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대규모(Massive) 공개(Open) 온라인(Online) 수업(Course), 즉 '무크(MOOC)'가 등장한 순간이었다.

무크(MOOC)는 말 그대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강의, 토론, 평가와 수료까지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교육방식이다.

하버드대학 무크인 하버드X의 초대 연구원으로 일했던 조너선 헤이버가 펴낸 '무크-대학의 미래를 바꿀 학습 혁명'은 지식학습과 교육시스템의 미래를 제시하는 무크의 세계를 분석한다.

스탠퍼드를 필두로 하버드, MIT 등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아는 명문 대학들은 소속 대학 교수들의 질 좋은 강의를 동영상 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미국의 명문 대학들이 무크 플랫폼에 줄을 지어 수업을 제공하면서 무크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무크는 지난 500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던 교육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건언한

다. 온라인 기술은 이제 대학교육과 접목돼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 종이책이던 교과서는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태블릿과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갔으며 강의실은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졌다.

무크가 기존의 온라인 강의와 다른 점은 하나의 비디오 강의가 아니라 과제, 토론, 평가, 수료 등 기존 수업의 요소를 갖춘 '실제 수업'이라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교실과 조화된 혼합학습(blended learning)을 통해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강의를 무크로 듣고 실제 교실에서는 심화된 연습과 토론을 하는 교육 방식이다.

무크 수강 사례에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다. 몸바이의 10대 수강생, 시리아 내전의 피난민 수강생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독학으로 무크를 수료한 이들이 적지 않다. 15세의 어느 몽골 학생은 MIT의 무크를 친구들과 수강하며 상위 1%에 속하는 성적으로 수료한 바 있다.

저자는 무크가 기존 교육의 뿌리를 뒤흔들고 교육의 민주화를 촉발하리라고 진단한다. 질적으로 다른 교육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며 그 변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물론 학문적으로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대학 교육체계에 위협이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한국의 대학 현실, 즉 학벌사회와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를 넘어 '위안부' 문제가 대두되면서 무크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줄까?

〈돌베개·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제국의 위안부'는 피해자 목소리 자의적 왜곡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정영환 지음

재일 역사학자 정영환 교수(메이저가쿠인 대학)가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박유하 세종대 교수와 그의 책 '제국의 위안부'를 비판하는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를 펴냈다. '제국의 위안부'는 위안부 피해자를 '위안부는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기술해 논란을 촉발시켰었다.

"'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상'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정 교수는 박 교수의 입장에 대한 표면적인 반박에 머무르지 않는다. 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에서 인용한

사료와 증언의 사실성을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일본의 국가 책임을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자의적으로 왜곡했다고 본다. 그로 인해 일본의 '전후보상'의 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과대평가하는 등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 교수의 책 출간으로 '제국의 위안부 논란'은 다시 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일간의 최대 쟁점인 위안부 문제와 맞물려 역사 논쟁은 2라운드로 돌입했다. 현재 박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서문에서 "내 작업이 단순한 '제국의 위안부' 비판을 넘어 '위안부' 문제의 안이한 '해결'을 요구하는 일본과 한국의 '지적 퇴락'을 반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푸른역사·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탈규제 시장이 자본의 패권을 불렀다

**왜 상인이 지배하는가**

데이비드 프리스틀랜드 지음



영국의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결된 후 전 세계에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도래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기존의 질서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EU패권과 신자유주의 질서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시대에는 세계를 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제적 안목과 관점, 통찰이 필요한 시대다. 옥스퍼드 대학 사학과 데이비드 프리스틀랜드 교수가 지적한 자극을 주는 책을 출간했다. '왜 상인이 지배하는가'는 오늘날 막강한 힘을 지닌 '상인형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지금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작품은 '상인의 가치'가 지배하는 시대다. 그들은 풍요와 효율을 추구하지만 한편으로는 최대의 이윤을 올리려는 것만 추구한다. 지난 30년간 상인 집단은 최대의 패권 세력으로 부상했

다. 경쟁, 유연성, 이윤을 추구하면서 다른 가치를 희생시켰다.

저자는 지금의 위기가 어떤 뿌리에서 연유하는지를 파고든다. 이를 위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역사의 조각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연결한다. 저자가 역사의 동력을 이해하는 틀은 '카스트'라는 고대의 틀이다.

데이비드 프리스틀랜드는 "카스트"는 사회 집단들을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자기 이익에 충실한 조직으로서뿐 아니라 사상 체계와 생활양식의 총화로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며 "군대, 상업조직, 관료제 등과 같이 권력 행사에 있어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네트워크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오늘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인, 군인(전사), 현인이라는 세 카스트의 역할을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다시 말해 상업적이며 경쟁적인 동기를 앞세운 상인집단, 귀족적이며 군국주의적 동기를 앞세운 군인집단, 관료제적 또는 사제적 성향의 현인집단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서로 협력과 대립을 통해 노동자집단을 억압하거나 설득하면서 권력을 쟁취했다.

그렇다면 상인집단은 하위 카스트에서 어떻게 세계의 지배자가 되었을까. 오랫동안 미천한 신분이었던 상인은 19세기 이르러 영향력이 커진다. 당시 독일과 일본이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한 것은 현인-테크노크라트와 상인집단의 도움이 있었다. 얼마 후 1차대전 발발로 전

쟁을 일으킨 귀족-전사집단은 대중의 신뢰를 잃고 상인세력이 부상한다.

1920년대 미국이 패권국으로 부상하며 상인이 지배력을 확장해나간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이 터지면서 상인집단의 영향력이 위축된다. 이후 등장한 사회민주주의의 모델은 전사집단의 역할을 축소하는 반면 노동자와 상인집단의 역할을 증대시켰다.

상인집단은 1960년대 냉전에 반기를 들었던 학생운동 집단과 손잡고 패권을 되찾는다. 냉전시대를 거치며 공산정권이 붕괴되고 노동자집단마저 타격을 입는다. 물론 공산권 붕괴로 전사와 현인집단도 신뢰적 기반을 상실한다.

바이흐로 상인집단의 단일패권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세계는 다보스 포럼에서 합의된 '탈규제 시장'이야말로 바람직한 미래상"이라는 관점을 받아들였다.

오늘날 세계는 상인이 지배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탈규제정책과 대량실업으로 노동조합은 힘을 잃었고 금융권은 대졸을 거부하고 통화 공격을 감행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길들였다. 30년간 촉세 풀린 상인집단의 독주는 부의 불평등, 사회 불안을 야기시켰다.

저자는 한 집단이 배타적으로 독주할 때 권력의 수레바퀴는 반드시 돌아간다고 강조한다. 권력의 지각변동은 시작됐다. 다음은 어떤 카스트가 왕좌에 오를까. 아니면 권력을 나누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까. 〈원더박스·1만9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저자는 오늘날 세계는 상인집단이 지배하지만, 한 집단이 배타적으로 독주할 때 권력의 수레바퀴는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원더박스 제공〉

인생의 향로를 뒤바꿔 놓은 결정적 순간들



**비밀문장**

박상우 지음

작가 박상우가 오랜 침묵을 깨고 신작 장편 '비밀문장'으로 돌아왔다. 지난 2009년 '인형의 마을'로 동리문학상을 수상한 이후 침묵의 시간을 가진 지 8년 만이다. 그동안 삶의 근원과 문학의 존재의 미를 화두처럼 붙잡았던 작가는 자신의 인생 역정을 토해내듯 작품에 풀어놓는다. 소설 밑미에 첨부된 '참고문헌'이 말해주듯 많은 학습 시간과 소설가로서의 책임을 전하던 결과물이다. '비밀문장'은

철학과 문학 그리고 영성과 과학이 만나 교류하는 지점에서 탄생된 스토리다.

주인공은 오로지 소설가가 되기 위해 살아온 스펀지같은 '문필우'다. 그는 등단이라는 제도적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채 서른을 몇 달 앞둔 시점에서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한다. 소설은 문필우가 서른에 다다르기 직전의 인생 향로를 뒤바꾸게 된 순간들에 대한 서사다.

출판사에서 문학 담당 편집자로 일하기도 하는 문필우는 동료이자 과학 출판분야 편집장인 '씨니'와 사귀면서 제로(0)의 세계를 접한다. 제로는 무자 무한의 세계이면서, 혼돈의 세계다. 얼마 후 씨니는 아무런 말도 없이 자취를 감추고, 문필우에게 '제로'라는 장편소설이 보내진다. 〈문학과학지상사·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현대 리더들에게 교훈 될 세종의 통치철학



**세종의 적술력**

박현모 지음

"한발 앞서 이끌며 실행하라." 한글 창제와 과학 발전, 음악·문자·의약 등 거의 전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거둔 세종. 그가 남긴 '세종실록'은 위기를 극복하고 태평성대를 이룩한 세종의 고민과 리더십 비결이 그대로 담겨 있다.

'세종실록'에서 찾을 수 있는 무수한 어록 중에 오늘날 리더들에게 의미있는 통치철학과 새로운 리더십 교훈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해 52개의 사자성어로 구성된 '세종의 적술력'이 출간됐다. 왕으로서의 세종, 리더로서의 세종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여주대학교 세종리더십연구소장 박현모 교수가 7년간 대기업 사장단, 기업 CEO, 정치인,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매일 진행해온 강의를 바탕으로 엄선해 묶은 책이다.

'적술력(適率力)'은 지도자가 앞장서서 끌어가고(適) 술선수범하여(率) 성과를 거두는 힘을 말한다. 저자는 세종 시대에 활약한 뛰어난 인물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리더에게 생각할 거리와 새로운 통치철학을 제공할 수 있는 리더십 화두를 제시한다.

〈흐름출판·1만6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제)10-1239196호, 특허(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이스타이로 건축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세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면, 외벽 단열, 외벽 마감, 외벽 방수, 외벽 방수, 외벽 방수, 외벽 방수

시공후 시공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기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3개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신기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대산프리모가발